

『禮記』 大同社會에 대한 고찰

권정안*, 복대형**

< 目 次 >

- | | |
|------------------------------|---------------------|
| I. 서론 | 2. 보편적 人類愛 실천 |
| II. 大同과 小康의 사회상 | 3. 安定된 삶과 福祉 구현 |
| III. 大同의 사회상과 儒學的 의미 | 4. 사회적 信賴 회복과 平和 실현 |
| 1. 公的 天下觀의 제시와 지도자
선출의 원칙 | IV. 결론 |

<국문 초록>

유학은 인류 전체가 인간답고 평화롭게 사는 이상사회에 대한 꿈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으며, 『예기』 『예운』의 ‘대동’은 이런 유학적 이상사회의 한 비전을 보여준다. 본고는 老莊의 영향과 秦漢교체기의 역사적 경험이 반영된 대동사회에 대한 연구를 통해, 先秦유학의 사상들이 어떻게 그 사상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그 사상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大同’이란 서로 간에 존재하는 작은 차이를 넘어서 너와 나의 구분이 없이 전체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동사회는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평등이라는 가치와 이를 통한 전 인류적 평화와 통합을 핵심으로 한다. 본고는 이런 이해를 기반으로 『예기』의 대동사회가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회상과 이를 통해 드러나는 사상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공주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jakwon@kongju.ac.kr

** 대전도안고등학교 교사 / cdog705@hanmail.net

첫째, 혈연과 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인류적 관점에 근거한 ‘公的 天下觀’을 제시하고 있다. 공적 천하관을 실현하는 현실적 방법은 ‘選賢與能’의 인재선발 원칙을 군주에게까지 확대한 禪讓에 의한 권력이양으로 드러나며, 이를 통해 인류전체의 가치와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인류단위의 사회상을 제시한다.

둘째, 보편적 人類愛를 실천하는 사회다. 이것은 ‘親親’의 사랑을 출발점으로 하여 ‘仁民’으로 확충해 나가는 유학의 인간애와 도덕중심의 가치관을 보여준다.

셋째, 安定된 삶과 복지가 구현된 사회다. 이는 모든 사람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안정된 기반위에서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유학의 ‘各得其所’의 이상을 보여준다.

넷째, 사회적 信賴 회복과 국제적 平和가 실현된 사회이다. 대동사회는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美德을 발휘하며 信賴와 和睦이 구현된 사회로, 개인과 개인은 물론 집단과 집단이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이다. 이것은 곧 유학이 지향하는 ‘平天下’의 이상이다.

이처럼 대동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혈연을 초월한 인류애를 실천하며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안정된 삶의 기반위에서 인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회이다. 그것은 ‘보편적 인류애’와 ‘미덕’에 근거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너와 나의 구별을 초월하여 서로를 신뢰하고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 된 세상이다.

이상과 같이 『예기』에서 보여주는 대동사회의 사회상은 老莊은 물론 墨家, 農家 등 선진시대 다양한 사상의 영향과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유교적 사상에 기반한 이상적 사회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秦漢 교체기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理想社會, 大同, 公的 天下觀, 安定된 삶, 人類愛, 信賴, 平和

I. 서론

인간은 역사 이래로 평화롭고 행복하기 보다는 대체로 혼란하며 고단한 삶을 살아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하고 고통스런 현실을 초월한 평화롭고 행복한 이상세계를 꿈꿔왔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서양의 천당이나 유토피아, 동양의 극락이나 무릉도원 같은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이러한 이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극락이나 천당과 같이 來世를 지향하는 종교적 이상향이고, 다른 하나는 來世가 아닌 현실에서 꿈꾸는 이상향이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평등하고 풍요로운 사회이고, 老子의 ‘小國寡民’은 자연촌락 단위의 소박한 사회를 꿈꾸는 것이며, 莊子의 ‘逍遙遊’나 ‘無何有之鄉’은 현실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이며, 도연명의 ‘武陵桃源’은 국가권력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이고, 우리나라의 ‘十勝之地’는 오랜 전란에 시달린 민중이 꿈꾸어온 평화로운 이상향이다.

이와 같은 이상사회가 갖는 가장 보편적 사회상의 상징은 요순시대의 ‘擊壤歌’가 보여주는 바와 같은 ‘풍요’와 ‘평화’이다. 풍요와 평화를 이상으로 갖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 전체가 대부분 굶주림과 전란 속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런 현실 속에서 인류가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고통스런 현실에서 행복한 삶을 꿈꾸어온 인류가, 그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우리가 사는 공동체 자체의 성격과 내용에 달려있음을 자각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분투 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이상사회관이 형성된 것이다.

한편, 儒學은 다른 사상들이나 종교에 비해 현실의 인간사회 안에서의 이상사회를 추구한다. 그것은 우선 來世가 아니라, 現世에서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 국가와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天下’를 국가다운 국가와 인간다운 사람들이 사는 천하로 만들고자 한다. 특히 유학은 국가단위 만

이 아니라, 천하라는 개념을 통해서 인류전체가 인간답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에 대한 꿈을 끊임없이 추구해왔다. 『논어』에서 말하는 ‘天下有道’의 세상이 그렇고, 大學의 ‘平天下’의 이상이 그러하며, 맹자의 ‘王天下’의 이상사회도 그러한 비전의 일환이다.

『禮記』 「禮運」의 ‘大同’은 바로 이런 일련의 유학적 이상사회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 ‘대동’이란 너와 나의 분별을 넘어 상호간의 신뢰와 화목으로 하나 됨을 의미한다. 즉, 대동사회는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평등이라는 가치와 이를 통한 전 인류적 평화와 통합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대동’은 유학의 순수한 이상사회관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거기에는 漢代 이후 지적된 바와 같이 老莊的 이상사회관이 들어있고, 그 이외에도 墨家의 兼愛사상과 許行的 農家사상의 영향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상적 흐름들이 秦漢교체기의 역사적 경험과 함께 『예기』의 대동사상 속에 녹아 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유학적 이상사회관 가운데 후세에 가장 널리 알려진 ‘대동사회’에 대한 『예기』의 기술들이 보여주는 사회상과 소강사회에 대한 언급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동사회의 여러 내용들이 갖는 사상적 의미를 검토하며, 나아가 그런 내용들이 어떤 사상적 맥락에서 형성된 것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Ⅱ. 大同과 小康의 사회상

‘大同’에 관한 논의는 『예기』 「예운」편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었다. 공자가 魯나라에서 蜡祭를 지내고 난후 성문 앞에 설치된 망루에 올라서 魯나라의 현실을 탄식하였다. 이에 옆에 있던 제자 言偃이 그 이유를 묻자, 공자는 大道가 행해졌던 것과 三代之 융성한 시대를 자신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大同社會’와 ‘小康社會’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大道가 행해지는 세상에서는 天下를 公的인 것으로 여기니,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며, 信義를 강론하고 친목을 닦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는 않으며, 자신의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노인들은 삶을 품위 있게 마칠 수 있게 하며, 장년의 사람들은 사회에서 유용한 역할이 있게 하며, 어린이들은 양육 받을 곳이 있게 하며, 홀아비·과부·고아·자식 없는 노인·병든 사람들이 모두 부양받을 곳이 있게 하고, 남자들은 사회에서 맡은 역할이 있으며, 여자들은 가정이 있다. 재화가 땅바닥에 버려지는 것은 싫어하지만 반드시 자기 집에만 저장하려 하지는 않으며, 노동력이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을 싫어하지만 반드시 자기만을 위해서 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나쁜 謀議가 막혀서 일어나지 않으며, 도둑질을 하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바깥문을 만들기는 하지만 닫을 필요가 없으니, 이것을 일러 大同社會라고 한다.²⁾

대동사회는 ‘천하를 公的인 것으로 인식[天下爲公]’한다. 이는 천하를 그 자손에게 사사롭게 넘기지 않고, 천하의 賢能한 인재에게 줌으로써 公共의 것으로 여긴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賢能한 사람을 선발하며, 사회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익히게 한다. 이러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너와 나의 구분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부양한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역할이 주어지고, 모든 사회적 약자들은 사회적 보장을 통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재화와 이를 얻기 위한 노동은 우선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스스로에게 충족되면 나아가 그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

1) 陳澧, 『禮記集說大全』, “夫子言, 我思古昔大道之行於天下, 與夫三代英賢之臣, 所以得時行道之盛, 我今雖未得及見此世之盛, 而有志於三代英賢之所爲也.”

2) 『예기』, 「예운」, “大道之行也, 天下爲公. 選賢與能, 講信修睦. 故人不獨親其親, 不獨子其子. 使老有所終, 壯有所用, 幼有所長, 矜寡孤獨廢疾者, 皆有所養, 男有分, 女有歸. 貨惡其棄於地也, 不必藏於己, 力惡其不出於身也, 不必爲己. 是故, 謀閉而不興, 盜竊亂賊而不作. 故外戶而不閉, 是謂大同.”

서 기꺼이 양도하거나 봉사할 수 있다는 의식을 자연스럽게 갖는다. 이와 같이 사회구성원간에 신뢰와 사랑이 증만하기 때문에 도둑이나 강도 처럼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존재가 생겨나지 않으며, 따라서 비록 대문이 있어도 굳이 닫아 걸 필요가 없어진다. 이것이 공자가 말한 대동사회의 모습이다.

대동사회는 과거에 존재했었던 이상적인 사회였다. 대동사회가 과거에 존재했었던 이상사회라고 보는 관점은 이어지는 소강사회에 대한 설명에서 ‘지금은 大道가 이미 사라져서’라는 표현 속에 드러난다. 이는 전형적인 복고주의적 역사관이라 하겠다. 이런 복고주의적 관점은 儒學과 老莊에 공히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유학의 역사관에서 복고주의는 이른바 ‘以古批今’을 통해서 ‘今’을 이상적인 사회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小國寡民’의 사회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老子나, 사회 자체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포기한 莊子の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이하에 제기한 소강사회의 모습은 분명히 대동사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제를 가진 사회지만, 동시에 이른바 천하대란의 상황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사회상이다. 소강사회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지금은 大道가 이미 사라져서 天下를 사적인 家門의 것으로 여기며, 각자 자신의 부모만을 부모로 여기고, 자신의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며, 재화와 노동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 大人은 (자신의 지위를) 대대로 전하는 것을 禮로 정해서 성곽과 垓字를 견고하게 하고, 禮義를 기강으로 만들어 임금과 신하의 질서를 바로잡으며 부모와 자식을 돈독하게 하며 형제를 친목하게 하며 부부를 화목하게 하며, 제도를 만들며, 경작지와 마을의 제도를 세우며, 용맹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인재로 여기며, 功勞를 자기 것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간사한 모의가 이로부터 일어나고 전쟁이 이로부터 일어난다. 禹·湯·文·武·成王·周公이 이러한 시대상황으로 말미암아 선택되었으니, 이 여섯 분의 君子들은 禮에 대하여 삼가지 않음이 없었다. 禮라는 규범으로 義를 드러내며 信을 이루며 허물을 드러내며 仁을 본받게 하고 辭讓함을 講說하여, 백성들에게 常法을 보였다. 만일 이 규범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권세가 있

는 자라도 제거하였으니, 대중들이 재앙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를 일러 小康이라 한다.³⁾

소강사회는 ‘천하위공’의 大道가 은폐되어 숨어버린 사회로 ‘천하를 私家의 소유로 인식[天下爲家]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지도자는 자신의 지위를 자식에게 세습한다. 따라서 지도층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私的인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다. 지도자는 사유화한 천하를 세습하는 것을 사회제도로 확립하며, 사유화한 천하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어시설을 만들고, 禮義를 기강으로 삼아 사회를 조직하여 질서를 유지한다. 또한 의식주를 비롯한 인간생활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농업사회의 생산기반과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며, 개인들의 私益을 위한 활동과 그 결과의 私有를 보장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비록 혼란과 전쟁이 일어나지만, 禹·湯·文武·成王·周公과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禮義를 기강으로 삼아 백성들을 교화하여 사회를 안정되게 유지하였다. 만일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다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회적 同意를 얻어 제거하니, 이러한 사회가 소강사회이다.

이상에서 『예기』에 기록된 대동과 소강의 사회상에 대하여 원론적인 수준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두 사회의 양상은 관심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대비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본질적인 또는 상대적인 차이를 보이는 사회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대동’과 ‘소강’의 차이가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떤 사상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3) 『예기』, 「예운」, “今大道既隱, 天下爲家, 各親其親, 各子其子, 貨力爲己. 大人世及以爲禮, 城郭溝池以爲固, 禮義以爲紀, 以正君臣, 以篤父子, 以睦兄弟, 以和夫婦, 以設制度, 以立田里, 以賢勇知, 以功爲己. 故, 謀用是作, 而兵由此起. 禹·湯·文武·成王·周公, 由此其選也, 此六君子者, 未有不謹於禮者也. 以著其義, 以考其信, 著有過, 刑仁講讓, 示民有常. 如有不由此者, 在勢者去, 衆以爲殃. 是謂小康.”

Ⅲ. 大同의 사회상과 儒學的 의미

1. 公의 天下觀의 제시와 지도자 선출의 원칙

대동사회의 제1전제는 ‘천하를 공적인 것으로 여긴다[天下爲公]’는 것이다. 天下는 ‘天下地上’의 줄임말로 인간이 모여 살아가는 가장 큰 단위의 공동체이자 최종의 단계를 의미한다. 國과 家는 혈연이나 지역에 기반해서 형성되는 것이지만, 天下는 혈연과 지역을 넘어선 인류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천하를 公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천하를 개인이나 특정 집안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인류전체의 소유로 여긴다는 말이다.⁴⁾

이런 대동사회의 모습은 명백히 차별을 반대하고 그 차별의 근거가 된 여러 가지 개인적·사회적인 차이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莊子の ‘萬物齊同’의 이념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물론 그것은 동시에 개별집단들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추구한 孔孟의 사상에 기초한 것이지만, 이를 ‘天下爲公’의 大道로 확장한 것은, 역시 老莊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公의 天下觀’이란 천하에 대한 公의 의식에 근거하여 인류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려는 의식이라고 하겠다. 공적 천하관에 입각해서 제안된 사회체제와 규범, 가치관 등이 ‘大道’, 즉 ‘큰 진리’이다. 이러한 ‘큰 진리’를 추구하는 대동사회의 지도자는 개인이나 국가단위의 이익과 가치를 초월하여 인류전체의 가치와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인류단위의 사회모델을 지향하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대동사회의 ‘천하위공’ 개념을 경제적 관점에서 사유제와 대비된 공유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대동사회를 공유제가 온전히 실현된 원시공산주의사회로 상정하기도 한다.⁵⁾ 하지만 글의 맥락을

4) 『여씨춘추』 「귀공」, “天下非一人之天下也, 天下之天下也.”

5) 陳正炎·林其銓은 “대동사회의 궁극적 원칙은 ‘天下爲公’이다. 이것은 공유제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유제에 기초한 ‘天下爲家’와 완전히 대립된 것이다. 대동사회의 근본은 ‘천하위공’이 실현된 공유제인데, 이것이 기타 구체적인 내용의 근원이요,

통해 볼 때 대동사회의 ‘천하위공’은 뒤에 오는 소강사회의 ‘天下爲家’와 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하위가’란 천하를 다스리는 권력자가 천하를 자기 한 사람이나 자기 집안의 소유물로 여긴다는 말이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대인은 대대로 전하는 것을 예로 여긴다[大人世及以爲禮]’는 말은, 지도자가 자신이 획득한 권력을 세습의 방식을 통해서 子孫에게 전해주는 것을 의미한다.⁶⁾ 결국 ‘천하위가’는 천하에 대한 私의 소유의식과 세습적 권력이양과 관련된 개념이다. 따라서 ‘천하위가’와 대비되는 ‘천하위공’은 천하에 대한 公의의식과 권력승계에 있어서의 公共性 추구를 드러낸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⁷⁾

이것은 ‘천하위공’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선별한다[選賢與能]’는 구절을 통해서 보다 명확해 진다. ‘選賢與能’이란 『書經』과 『孟子』의 ‘尊賢使能’과 관련된 것으로,⁸⁾ 도덕성과 능력이 있는 인재에게 사회적 지위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서경』과 『맹자』의 ‘존현사능’은 天子나 諸侯를 제외한 인재등용의 일반적 원칙으로 제시된 것인 반면, 『예기』 대동사회의 ‘선현여능’은 그 대상을 天子에

출발점이다.(陳正炎·林其金炎 著 이성규 譯, 『中國大同思想研究』, 지식산업사, 1990, p.124.)”라고 하였으며, 김성운은 “대동과 소강의 사회적 원리를 압축한 ‘天下爲公’과 ‘天下爲家’란 말은 주로 사회적 차원의 토지 公有와 私占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김성운, 「조선시대 大同社會論의 수용과 전개」, 『朝鮮時代史學報』 제 30집, 조선시대사학회, 2004, p.12)” 라고 하였다.

- 6) 『예기집설대전』은 ‘世’는 父子간에 상속하는 것이며, ‘及’은 형제간에 상속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7) 김상현, 「유교 이상사회론에 대한 연구」, 『大同哲學』 제78집, 2017, p.236, “천하를 공공의 산물로 간주한다는 말은 근대적 의미에서 ‘사유재산의 부정’을 의도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전반에 걸친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사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소강사회를 표현하는 ‘천하를 사적인 것으로 여겼다(天下爲家)’라는 구절과 대비해서 해석하자면, 대동의 ‘천하위공(天下爲公)’은 군주의 권력이 사유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 8) 『서경』, 「열명中」5, “官不及私昵, 惟其能, 爵罔及惡德, 惟其賢.” 『周官』20, “推賢讓能, 庶官乃和.” 『맹자』, 「공손추上」5, “尊賢使能, 俊傑在位, 則天下之士皆悅而願立於其朝矣.”

계까지 확대한 것이다.

물론 ‘대동’의 ‘선현여능’이 천자의 권력을 어떻게 이양하느냐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다.⁹⁾ 하지만 소강에 대한 기술에서 ‘천하위가’ 다음에 자손에게 세습한다는 ‘世及’을 언급한 것과 연관 지어 볼 때, ‘천하위공’ 다음에 ‘선현여능’을 언급한 것은 천자의 자리도 세습적 방법이 아닌 賢能이라는 公의 기준에 따라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권력의 승계에 있어서 현능한 인재에게 천자의 자리를 넘겨주는 ‘禪讓’이라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는 것을 무언중에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동사회의 공적 천하관이 가장 철저하게 드러난 부분은 ‘선현여능’의 원칙에 입각한 지도자의 선발과 선양에 의한 권력이양이다. 이것은 ‘천하위공’이 실현된 대동사회를 유학의 이상인 堯舜시대로 상정하는 관점과, 요순의 성스러움이 선양을 통해 극대화 된다는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천하위공’이라는 말은 천하에 대한 公의의식과 권력 승계에 있어서의 公共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강사회의 인재선발에는 ‘선현여능’의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소강사회가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기 보다는 혈연에 기초하여 사회적 지배계급을 형성하는 사회라는 것을 반증하며, 私의 소유의식을 바탕으로 私를 公으로 포장하여 권력을 세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동사회가 公의 가치에 토대하여 선현여능의 원칙에 따라 지도층을 형성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다. 소강사회의 인재등용 원칙으로 제시된 것은 ‘용맹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어질게 여긴다[以賢勇知]’는 것

9) 선양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하는 내용은 아니다. 다만 맹자에 언급된 바와 같이 선양의 핵심적인 내용은 民本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요임금이 순임금을 하늘에 천거하니 하늘이 받아들였고, 백성들에게 드러내니 백성들이 받아들였다.(『맹자』, 「만장上」6 “堯薦舜於天而天受之, 暴之於民而民受之”)’는 말이 곧 이를 보여준다.

이다. 이것은 天子나 諸侯를 제외한 관리 선발의 원칙을 말한다. 소강사회는 ‘천하위가의 私的의식에 기초한 私의국가를 보위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혜로운 관리와 용맹한 군인을 인재로 대우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대동사회의 ‘선양이라는 권력이양 방식은 요순의 唐虞와 함께 유학의 이상사회로 여겨져 왔던 三代의 세습적 군주제와 충돌하는 것이다. 『예기』는 세습적인 군주제를 채택한 夏殷周 三代를 대동사회가 아닌 소강사회로 보고 있다. 이것은 『예기』의 사상이 형성된 당대나 그 이전의 시대에, 세습왕조를 시작한 夏의 禹임금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 존재했고, 『예기』가 그런 사상적 관점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자가 禹에 대하여 ‘나는 비판할 것이 없다’¹⁰⁾고 말한 것 자체가 당대에 禹의 세습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孟子가 요순의 선양과 세습적 繼體방식을 모두 의미 있다고 한 것¹¹⁾ 역시 이런 비판적 모습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하겠다. 이로써 보면 『예기』의 대동사회에서 보이는 공적 천하관은, 소강사회에서 보여주는 ‘私有天下’와 세습적 계승 방식을 현실적 모습으로 어느 정도 긍정하지만, 인류가 추구해야 할 이상사회의 모습에서도 역시 대동사회의 공적 천하관에 입각한 賢能의 인재선발 방식이 가장 공정하고 바람직한 방식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동사회는 인류 초기사회의 모습이며 차별이 없는 사회라는 점에서 규범적 의미를 갖는 禮義보다 보편적 인류적 가치를 의미하는 ‘大道’를 중시하는 사회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에서 漢代 유학자인 鄭玄은 이 대동사회의 모습이 儒家보다는 老莊의 영향이 강한 것임을 지적하였던 것이다.¹²⁾ 다만, 이러한 대동사회의 모습은 앞서 지적한 대로 소규모의 사회

10) 『논어』, 「태백」21, “子曰, 禹, 吾無間然矣.”

11) 『맹자』, 「만장上」6, “孟子曰, … 天與賢則與賢, 天與子則與子. … 孔子曰, 唐虞禪, 夏后殷周繼, 其義一也.”

12) 鄭玄은 ‘小’康이란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주석하면서, “大道가 행해지던 시대에

를 지향하는 老子的 觀點이 반영되기 보다는 대규모의 인류사회를 추구하며, 그 인류의 보편적 규범으로 ‘公道’¹³⁾, ‘大道’를 제시한 점에서 여전히 유학의 天下觀에 기초한 것이다. 더욱이 ‘絶聖棄智’¹⁴⁾를 주장하며 인재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노장에 비해, 사회적 인재를 존중하고 또 인재선발 원칙인 ‘선현여능’을 지도자에게까지 확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학적인 특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2. 보편적 人類愛 실천

대동사회가 너와 나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 되는 사회임은 앞서 언급한 바이다. 대동사회의 하나 된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으며, 자신의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人不獨親其親 不獨子其子]’는 말이다. 이것은 소강사회가 ‘각자 자신의 부모만을 부모로 여기고, 자신의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는 [各親其親 各子其子]’것과 달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의 부모나 자식을 나의 부모나 자식처럼 애정을 가지고 도와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편적 人類愛의 관점을 보여주는 말이다. 대동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의 가족만 사랑하고 책임지려는 사고를 넘어서 보편적 인류애를 실천하려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기 자신을 단순히 개인 또는 가족이나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자각을 넘어서 인류의 하나라는 자각을 토대로 가능한 것이며, 그런 점에서 여전히 공자의

살던 사람들은 禮를 忠信보다 각박한 것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鄭玄이 『예기』의 대동과 소강에 대한 이론이 老莊의 영향임을 지적한 것이다.(『예기 정의』, 「예운」, “大道之人, 以禮於忠信爲薄.”)

13) 公道란 인간과 인간, 집단과 집단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의식이자 원칙이며, 그러한 원칙이 구체화 되어 나타나는 사회 조직과 제도를 의미한다.(권정안, 「춘추의 근본이념과 비판정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pp.55-57.)

14) 『도덕경』 19장, “絶聖棄智, 民利百倍.”

仁道主義적 인간관에 기초한 것이라 하겠다.

반면 소강사회는 ‘천하위가’의 私的인 소유의식에 기초한 사회이며, 사회 내에 신분에 따른 차등이 존재하는 사회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뢰와 화목이 부족하며, 대동사회와 같이 ‘신의를 강론하고 친목을 닦는다[講信修睦]’는 지침도 존재하지 않는다. ‘講信修睦’이란 개인과 개인의 신의와 친목을 넘어 집단과 집단, 즉 국가와 국가사이의 신뢰와 화목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강신수목’이라는 지침이 없다는 것은, 소강사회가 국가를 넘어선 천하단위·인류단위의 이상이나 비전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하위가’의 관점에서 천하와 국가를 사유화하는 것이지 천하인의 천하라는 공공의식을 갖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유학은 사랑, 곧 仁을 실천함에 있어서 差別을 강조한다. 따라서 ‘자기의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으며, 자신의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것은 유학에서 지향하는 仁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무차별적 사랑인 墨子 兼愛사상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동사회의 보편적 인류애를 목자의 겸애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규정하고, 본원유가의 仁사상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하려는 흐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목자는 겸애를 위해서 ‘親親’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데 반하여, 대동의 보편적 인류애는 ‘친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친친’을 기초로 하는 보편적 인류애로의 확충을 의미한다. 이는 ‘친친’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을 확대해서 ‘仁民’으로 나가는 인류애의 실천을 의미한다.¹⁵⁾ 물론 유학의 仁은 방법적인 측면에서 차별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仁을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親疏의 차등을 두어 親한 대상을 먼저하고 疏遠한 대상을 나중에 하는 것일 뿐, 나를 중심으로 하여 사랑을 점차 밖으로 확대해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孟子는 “내 노인을 노인으로 섬겨서 다른 사

15) 『맹자』, 「진심上」45, “親親而仁民”

람의 노인에게까지 미치게 하며, 내 어린이를 어린이로 사랑해서 다른 사람의 어린이에게까지 미치게 한다.”¹⁶⁾고 했던 것이다. 이처럼 맹자의 差別愛도 그 궁극처는 사해동포를 구별 없이 사랑하는 것이므로, 대동사회의 보편적 인류애를 반드시 목가사상의 영향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¹⁷⁾

다만, 맹자의 논리가 개인을 출발점으로 하여 보편적 인류애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대동의 보편적 인류애는 개인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가져야할 사회적인 윤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맹자의 仁民개념이 인간애를 각성한 주체적인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회 구성원으로 확충되는 방향을 갖는 것이라면, 대동의 보편적 인류애는 처음 출발부터 개인 자체가 보편적 인류애를 각성한 인간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유학의 인간애와 대동사회의 보편적 인류애가 발현되는 양상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이지만, 그것이 발현된 결과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3. 安定된 삶과 福祉 구현

대동사회는 그 구성원 개개인의 보편적 인류애를 좋은 세상의 핵심적 동력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仁을 治世의 근거로 제시하는 공자의 정신과 어느 정도 닮아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인간은 생존을 위해 실질적인 생존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관건은 안정적인 경제여건에 달려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대동사회는 각자의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사회상을 전제로 하며, 나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고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를 추구한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各得其所’¹⁸⁾의 유학의 이상을 보

16) 『맹자』, 「양혜왕상」7, “老吾老, 以及人之老, 幼吾幼, 以及人之幼.”

17) 김일환, 「동양 이상사회론의 연원과 그 이념적 성격」, 『동양문화연구』 제7집,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1, p.89.

18) ‘各得其所’라는 말은 『논어』와 『주역』에 보인다. (『논어』, 「자한」14, “吾自衛反魯,

여준다. 이러한 이상적 모습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회구성원들에 대해서 세대별로 그에 걸맞게 사회적으로 대우한다. ‘노인으로 하여금 여생을 마칠 곳이 있게 하며, 장성한 사람들은 일할 곳이 있게 하며, 어린이 들은 길러질 곳이 있게 한다[使老有所終 壯有所用 幼有所長]’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세대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과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사회 구성원들은 세대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를 갖는다. 세대에 따른 본질적인 차이란 ‘사회적 유용성’을 의미한다. 사회적 유용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장년의 성인들만이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존재이다. 하지만 사회가 그 생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를 대접하고 미래를 길러내야 한다. 노인은 과거에 공헌했던 사람이며, 어린이는 미래에 공헌할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사회적 유용성의 측면에서 배제해 버린다면 사회는 그 세대를 계속 이어갈 수가 없다. 바람직한 사회라면 역사적·사회적 시각을 동원하여 과거세대를 대접하고 미래세대를 길러주어야 한다.¹⁹⁾ 따라서 능력 있는 장년의 세대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노인세대를 부양하고 어린세대를 양육해야 하는 것이다.

노인에게는 그간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생을 마칠 때 까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부양하며, 어린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보다 큰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양육과 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년의 사람들은 재능에 따라 사회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이처럼 각각의 세대가 제 자리를 얻게 하는 일은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구성원이 속한 사회가 정치를 통해서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이처럼

雅頌各得其所.” 『주역』, 「계사下」, “日中爲市, 致天下之民, 聚天下之貨, 交易而退, 各得其所.”

19) 이러한 역사적·사회적 시각을 버리게 되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노인의 봉양을 꺼리며 아이를 낳고 기르지 않는 행태가 정의인 것처럼 포장되어 드러날 수도 있다.

민생의 안정을 국가사회가 책임지도록 하는 관점은 맹자가,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고 부모와 자식을 부양함에 유감이 없게 하는 것이 王道政治의 출발”²⁰⁾이라고 한 견해와 이어져 있다.

둘째, 특수한 나쁜 조건에 처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한다. ‘홀아비·과부·고아·자식 없는 노인·병든 사람들이 모두 부양받을 곳이 있게 한다 [矜寡孤獨廢疾者 皆有所養]’는 것이다. 이들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결손상태에 있는 ‘四窮’이라 불리는 사람과, 신체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과 병든 사람을 말한다. 이는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약자들을 사회가 보호한다는 의미이니,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회가 책임지고 부양하는 것이다. 복지실천은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최우선의 책무이다. 대동사회는 이것을 실천하는 사회이다. 다만 이 문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통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 남녀관계를 조화롭게 하고 각자에게 사회적 책무와 권리를 부여한다. ‘남자는 맡은 직분이 있으며, 여자는 시집 갈 곳이 있다[男有分 女有歸]’는 것이다. 이 말은 여자는 직분이 없고 남자는 가정과 관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자도 맡은 직분이 있고, 남자도 맞이할 아내가 있다[女有分 男有室]’는 의미를 생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회는 남녀의 결합을 통해 구성원을 충원하며 그 생명력을 이어간다. 따라서 안정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남녀 간의 관계를 균형 있게 설정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하며,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사회적인 위치가 부여되고 그에 따른 책무와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어야 한다. ‘여자는 시집갈 곳이 있다’는 것은 사회가 제도적으로 일부일처의 가족제도를 만들고 유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어떤 남녀도 소외되지 않고 가정을 이루어 그 속에서 나름의 권리와 책무를 수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전체 사회를 안정적으로 지탱하

20) 『맹자』 「양혜왕상」3, “是, 使民養生喪死, 無憾也. 養生喪死無憾, 王道之始也.”

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남자는 맡은 직분이 있다’는 것은 남성들이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직업이 있다는 것을 말하며,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맡아야 할 나름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²¹⁾ 아울러 여성들 또한 가정 내에서 맡아야 할 역할이 존재하며,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출산과 양육의 권리와 책무가 그 역할로 주어지는 것이다. 대동사회는 남녀 모두에게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맡은 바 권한과 책무를 제공하며,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인식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소강사회는 이상과 같은 세 가지 내용에 대한 언급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첫째, 소강사회는 노인이나 어린이를 부양하는 것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정치의 1차적 목적으로 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소강사회가 ‘各親其親 各子其子’하는 가족애와 차별애에 국한된 사회이기 때문이며, 사유화된 천하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사회제도의 확립과 질서유지를 급선무로 하는 사회라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소강사회는 남녀가 가정과 사회에서 각자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권리에 대한 의식이 적다. 이는 소강사회가 ‘抑陰尊陽’과 ‘男尊女卑’라는 남성위주의 가치관에 입각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정의를 통해 유지되는 사회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소강사회가 구성원의 안정과 복지를 추구하기 보다는 사회기강과 질서유지를 통해 사유화된 천하와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는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와 같이, 대동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세대에 따라 합당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21) 『예기집설대전』에서는 ‘男有分’의 ‘分’을 ‘士農工商之職分’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것은 직업을 의미하기도 한다. 직업이란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갖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개인이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나름의 역할이기도 하다.

사회적 약자들은 사회의 보호와 부양을 받으며, 남녀는 관계에 있어서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가치 있는 삶을 꾸려나가는 사회다. 바꾸어 말하면 대동사회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으며 각자 각자가 안정된 삶의 기반위에서 인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회인 것이다.

이는 유학의 ‘各得其所’의 이상사회관이 반영된 것으로, 일종의 正名論의 시각을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윤리라면, 구성원 개개인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대동사회가 추구하는 ‘각득기소’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자가 제시한 윤리적 정명론이 『예기』에 와서는 구성원들이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사회가 조건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진전된 것으로 이해된다.²²⁾ 이상적인 사회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권리를 향유하며 삶을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사회인 것이다.

4. 사회적 信賴회복과 平和 실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일과 노동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해야만 한다. 대동사회는 인류가 지향해야할 궁극적 이상 사회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삶이 실현되는 현실의 사회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일과 노동은 반드시 필요하다.²³⁾ 그럼에도 불

22) 이러한 논의가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주 20)에서 인용한 『맹자』의 예와 같이,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부모를 부양하고 돌아가신 부모를 보내드리는데 유감이 없게 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라는 생각이 이런 사상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23) 김기주는 이상사회의 유형을 무릉도원과 같이 풍요로운 자연조건을 통해 인간의 욕구가 저절로 충족되는 ‘감성적 이상사회’, 천국이나 불국정토와 같이 초월적 힘에 의지하여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는 ‘종교적 이상사회’, 그리고 인간의 노

구하고 대동사회가 이상사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일과 일을 통해 산출 되는 재화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현실 사회와 다르기 때문이다.

대동사회의 구성원들은 재화와 노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식을 갖는다. 재화에 대해서는, ‘재화가 땅바닥에 버려지는 것은 싫어하지만 반드시 자기 집에만 저장하려 하지는 않는다[貨惡其棄於地也 不必藏於己]’는 의식을 갖는다. 이는 자신의 잉여생산물이 쓸데없이 묵혀지거나 버려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력이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을 싫어하지만 반드시 자기만을 위해서 하지는 않는다[力惡其不出於身也 不必爲己]’는 의식을 갖는다.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의 생존조건을 스스로의 노동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타인의 노동에 의존해서 생존조건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노동관은 農家の許行이 주장했던 君民并耕²⁴⁾의 주장과 유사하다. 물론 그 논의의 기반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맹자로부터 ‘通功易事’의 관점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적어도 자신이 소비하려는 재화는 스스로의 노동을 통해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노동하지 않은 사람이 재화를 낭비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논리 자체는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대동사회가 개인의 私有를 부정하거나 私益을 위한 노동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⁵⁾ 나아가 대동사회는 자

력과 정치·사회적인 제도에 의해 일정한 욕구의 충족을 보장받는 ‘정치적 이상사회’로 구분하였다. 대동사회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 생산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는 ‘정치적 이상사회’이며, 대동사회에서의 일은 인간을 인간답고 자유롭게 하며 공동체의 구성원을 연결시켜주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김기주, 「이상사회에서의 일working과 노동labour」, 『哲學研究』 제111집, 大韓哲學會, 2009.)

- 24) 『맹자』, 「등문공상」4, “陳相見孟子, 道許行之言曰, ‘滕君則誠賢君也, 雖然, 未聞道也. 賢者與民並耕而食, 饗殮而治. 今也滕有倉廩府庫, 則是厲民而以自養也, 惡得賢?’”
- 25) ‘不必藏於己’라는 구절을 ‘천하위공’의 의미와 관련지어 원시공산사회 공유제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앞서 III장 1절에서 살

신이 소유한 재화나 자본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제공하며, 자신만을 위한 노동이 아닌 타인을 위한 노동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의 능력이 고르지 못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²⁶⁾ 고르지 못한 능력에 따라 얻어지는 결과 또한 고르지 못하다. 이는 우리 사회에 필연적으로 재화와 노동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불균형을 어떤 방식과 제도로 조절하고 처리하느냐가 안정적 사회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원들이 축적한 재화와 자본을 사회를 위해 기꺼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사회는 구성원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자신의 재화와 자본을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며, 자신의 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타적으로 공헌하는 행위를 우리는 德이라 하며, 德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기에 우리는 이것을 ‘美德’이라 부른다. 유능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봉사의식, 이것이 미덕이다. 이런 미덕이 갖는 장점은 미덕의 실천을 통해서 사회적 불균형과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미덕이 기능하는 사회의 구성원들은 스스로의 삶과 미래에 대하여 不安한 마음을 갖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생존과 탐욕을 위해 잔피를 부리는 일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나쁜 謀議가 막혀서 일어나지 않으며, 도둑질을 하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는다[謀閉而不興 盜竊亂賊而不作]’는 말이다. ‘나쁜 모의’는 간사하게 잔피를 부려 자신의 私的이익을 도모하는 것이고,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란 높은 지위에 오르려는 私慾을 충족하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사

펴본 바와 같이, ‘천하위공’이라는 말은 公의 天下觀에 근거한 권력이양의 ‘공공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따라서 이 구절을 공산사회의 ‘공유’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26) 『맹자』, 「등문공上」4, “物之不齊, 物之情也.”

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동사회는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미덕을 발휘하는 사회이며 ‘선현여능’이라는 공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는 구성원들의 부족한 점을 즉시 제공해주며 개인의 능력에 마땅한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족해서 남의 것을 훔칠 일이 없으며 다른 사람의 지위를 빼앗을 일이 없다.²⁷⁾ 이것은 미덕을 실천하는 공적가치관이 사회에 끼친 영향이다. 사회가 정의의 관점에서 지켜주고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해결해주는 좋은 사회에서는 굳이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속여야겠다는 욕망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사회든지 사회의 결속과 안정을 위해서는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와 화목이 요구된다. 그 중에서도 우선 신뢰가 중요하다. ‘無信不立²⁸⁾’이라는 말처럼, 모든 관계는 신뢰로부터 시작되고 끝을 맺는 것이다.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사회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해야 하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에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가 담보될 때 비로소 사회가 화목해 질 수 있다.

대동사회는 사회구성원 상호간에 신뢰와 화목을 충만하게 키워내는 사회이고 부단히 키워가는 사회이다. 대동사회의 지도자는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信義를 강론하고 親睦을 닦는다[講信修睦]’는 것이다. 신뢰가 우선하는 것이기에 구성원들이 신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후에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다. 신뢰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공평해야 한다. 지도자는 공평하게 정치를 해야 하고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동사회의 지도자는 公의 天下觀에 입각하여 公正하고 均平한 정치를 시행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지도자를 신뢰하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으며, 상하좌우가 서로를 신뢰하기에 사회가

27) 『예기정의』, 「예운」, “有乏輒與, 則盜竊焉施? 有能必位, 則亂賊何起作也?”

28) 『논어』, 「안연」7, “子貢問政, 子曰, ‘足食足兵, 民信之矣.’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三者何先?’ 曰, ‘去兵.’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二者何先?’ 曰, ‘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화목할 수 있는 것이다.

‘강신수목’이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집단과 집단과의 관계가 신뢰와 화목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강신수목’이라는 말이 ‘天下爲公 選賢與能’이라는 구절의 다음에 온다는 점에 주목해서 볼 때, 대동사회에서 언급한 ‘강신수목’은 개인과 개인의 관점을 넘어서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점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강사회가 개별적 국가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면, 대동사회는 개별적 국가집단이 모여서 이루어진 천하단위의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대동사회에서 말하는 ‘강신수목’은 천하와 개별집단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사회가 갖는 보편적인 사회상은 풍요와 평화임은 이미 언급한 바이다. 기본적으로 평화라는 것은 집단과 집단의 투쟁과 전쟁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의 실현이란 平天下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동사회의 신뢰와 화목은 소강사회에서처럼 예의라는 외재적 규범에 따른 인위적 규제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집단과 집단이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내재적이고 자율적인 인도주의적 정서로부터 성취되는 것이다.²⁹⁾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에 있다. 지도자가 구성원들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도덕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백성들은 선천적으로 내재된 도덕성을 주체적으로 밝혀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들과 집단들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여 온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것이다.³⁰⁾ 이것은 외재적

29) 양승태, 「미개적大同, 문명적大同, 小康, 그리고 정치적 이상의 역사적 진화론」, 『이상국가론-동양과 서양』,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pp.40-41, “孔子에게 있어서大同과小康은… 다음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공동체적 합일 및禮의 실현이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성인군주들의 강제력에 뒷받침된禮治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졌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30) 『서경』, 「요전」2, “克明俊德, 以親九族, 九族既睦. 平章百姓, 百姓昭明, 協和萬邦. 黎民, 於變時雍.”

규범에 의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보다는, 구성원들의 내재적 자율성에 기초한 사회화합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학의 이상이 반영된 것이니, 이것은 곧 유학이 지향하는 ‘平天下’의 이상이다.

IV. 결론

이상으로 『예기』 「예운」편에 제시된 ‘대동사회’는 어떤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제안들이 어떤 사상적 맥락에서 형성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대동’은 현실의 차별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상이 자 꿈이다. 그것은 이상사회의 보편적 상징인 평화가 단순히 갈등과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차별 없는 평등이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자각한 사람들이 제안한 사회상인 것이다. 儒學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인류 전체가 인간답고 평화롭게 사는 이상사회에 대한 꿈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으며, 『예기』의 ‘대동’은 이런 유학적 이상사회의 한 비전을 보여준다.

대동사회에 관한 논의는 老莊이나 墨家적 사유는 물론 제자백가의 사회이상이 종합된 것으로 儒學의 본의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처럼 『예기』의 대동사회론에 보이는 다양한 사상적 흐름은 『예기』가 형성되는 秦漢교체기의 다양한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동사회론의 첫 구절에 나오는 ‘大道’라는 표현이 반드시 老莊만의 사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유학의 差別愛도 궁극적으로는 너와 나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볼 때, 대동사회의 이상을 유학의 이상으로 이해해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대동’이란 서로 간에 존재하는 작은 차이를 넘어서, 너와 나의 구분이 없이 상호간의 신뢰와 화목으로 전체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동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혈연을 초월한 인류애를 실천하며 어느 누구도 소

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안정된 삶의 기반위에서 인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회이다. '대동사회'가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은 '바깥문을 닫지 않는다[外戶不閉]'는 것이다. 바깥문, 즉 대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은 개별성을 인정하되 서로 막힘없이 소통하며 하나가 되는 모습이며, 사회 내에 분쟁의 요소가 사라지고 평화가 깃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동사회가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회상과 그것이 보여주는 사상적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혈연과 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인류적 관점에 근거한 '公的 天下觀'에 입각한 사회다. 대동사회는 천하를 公共의 것으로 여기는 '天下爲公'이라는 대전제 아래 특정 국가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인류라는 보다 큰 公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이다. 공적 천하관을 실현하는 현실적 내용은 '選賢與能'의 인재선발 원칙을 군주에게까지 확대한 '禪讓'에 의한 권력이양으로 드러난다. 이를 통해 대동사회론은 인류전체의 가치와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인류단위의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보편적 人類愛를 실천하는 사회다. 대동사회는 개인으로부터 가족으로 가족으로부터 이웃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로 확대되는 보편적 인류애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부모나 자식도 나의 부모나 자식처럼 사랑하고 길러주는 사회다. 이것은 '親親'의 사랑을 출발점으로 하여 '仁民'으로 확충해 나가는 유학의 인간애와 도덕중심의 가치관을 보여준다.

셋째, 安定된 삶과 복지가 구현된 사회다. 이것은 대동사회의 구성원들은 세대에 따라 합당한 삶을 영위하며, 능력이 부족한 약자들은 사회적 부양을 받으며, 남녀관계는 조화와 협력을 통해 가치 있는 삶을 꾸려나가는 사회이다. 이것은 사회구성원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으며 안정된 기반위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유학의 '各得其所'의 이상을 보여준다.

넷째, 사회적 信賴 회복과 국제적 平和가 실현된 사회이다. 대동사회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미덕을 발휘하여 사회적 불균형과 불평등을 최소화하며, 信賴와 和睦이 구현되어 개인과 개인은 물론 집단과 집단이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이다. 이것은 곧 유학이 지향하는 ‘平天下’의 이상이다.

『예기』 대동사회론을 통해 볼 때, 孔子는 인류의 역사가 3단계로 퇴락해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大道’, 즉 ‘평천하’의 이상 구현된 ‘대동사회’로부터 ‘禮義’의 기강에 토대한 ‘소강사회’로, ‘예의’의 기강이 무너져 버린 천하대란의 ‘춘추시대’로의 퇴락이다. 다만 이런 역사관은 공자 이후의 역사가 더욱 퇴락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도리어 난세의 현실에서 좋았던 옛날의 모습들이 다시 구현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춘추시대 당대의 혼란과 불의의 현실을 일변하여 ‘예의’가 기능하는 ‘소강사회’로, ‘예의’의 ‘소강사회’를 일변하여 ‘仁道’가 구현되는 ‘대동사회’로 나아가기를 꿈꾸었던 것이다.³¹⁾

그러므로 대동사회론은 공자가 인류사회가 어떻게 발전해나가야 하는가 하는 3단계의 역사발전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3단계 역사발전론은 公羊學의 ‘張三世說’과 같은 유형의 역사관이다. ‘장삼세설’이란, 공자가 『춘추』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據亂世’에서 ‘升平世’로, 그리고 다시 ‘太平世’의 3단계로 발전할 것임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거란세’는 한 사회가 모순과 부조리로 인해 혼란에 직면한 상황을 말하고, ‘승평세’는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고 성장하여 어느 정도 안정된 사회를 이룬 것이며, ‘태평세’는 대동의 문명세계를 이룬 것을 의미한다. 대체로 이와 같은 3단계의 역사발전론은 『예기』에서 역사를 ‘난세’와 ‘소강사회’와 ‘대동사회’로 구분하는 것과 일치한다.³²⁾

결국 『예기』의 대동사회는 공자의 사회발전과 역사전개과정에 대한 희망, 그러한 희망이 실현된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난세의 현실을 극복하고 ‘예

31) 『논어』, 「용야」22, “齊一變至於魯, 魯一變至於道.”

32) 공양학의 ‘장삼세설’에 관한 내용은 권정안, 「유교의 역사이해」, 『한국종교의 역사이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pp.94~101 참고.

의'라는 正義에 토대하는 '소강사회'로, 정의에 토대한 소강사회를 넘어서 仁道가 실현된 '평천하'의 이상인 '대동사회'로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강사회는 '天下爲家'의 관점에서 기본 사회체제를 구성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의'를 통해 사회규범을 철저히 지키도록 강제함으로써 유지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소강사회는 사회정의 실현에 의해 유지되는 '正義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대동사회는 '天下爲公'을 전제로 하여 개인이나 국가를 초월한 천하단위 인류단위의 사회상을 제시한다. 그것은 정의의 차원을 넘어서 '보편적 인류애'와 '미덕'에 근거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너와 나의 구별을 초월하여 서로를 신뢰하고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 된 세상이다.

대동사회가 보여주는 이상적 사회상은 풍요와 평화라는 보편적 이상사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그런 좋은 세상은 결국 좋은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핵심적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의 관건이라는 유학의 정신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이런 사람들이 사는 좋은 세상은 결국 미덕이 존중받는 '美德공동체'요 모두가 하나의 가족과 같은 '人倫공동체'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기』의 대동사회론은 '정의'의 토대를 뛰어넘어 '인류애'와 '미덕'이 기능하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人倫공동체'야말로 인류가 지향해야할 진정한 이상사회라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다.

〈參考 文獻〉

『禮記』

『書經』

『周易』

『論語』

『孟子』

『呂氏春秋』

『十三經注疏』, 『禮記正義』, 李學勤 主編, 北京大學出版社, 2000.

陳澧, 『禮記集說大全』, 학민문화사, 1999.

소공권 저, 최명·손문호 역, 『중국정치사상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권정안, 「유교의 역사이해」, 『한국종교의 역사이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권정안, 「춘추의 근본이념과 비판정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김기주, 「이상사회에서의 일working과 노동labour」, 『哲學研究』 제111집, 大韓哲學會, 2009.

김상현, 「유교 이상사회론에 대한 연구」, 『大同哲學』 제78집, 대동철학회, 2017.

김성운, 「조선시대 大同社會論의 수용과 전개」, 『朝鮮時代史學報』 제30집, 조선시대 사학회, 2004.

김일환, 「동양 이상사회론의 연원과 그 이념적 성격」, 『동양문화연구』 제7집,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1.

양승태, 「『미개적 大同』, 『문명적 大同』, 『小康』, 그리고 정치적 이상의 역사적 진화론」, 『이상국가론—동양과 서양』,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陳正炎·林其鍊 著, 이성규 譯, 『中國大同思想研究』, 지식산업사, 1990.

Abstract

A Study on Da-tong society in Liji

Jeung-An Kwon*, Dae-Hyoung Bok**

Confucianism has always pursued a dream of ideal society in which the whole humanity lives peacefully and humanely. The 'Da-tong[大同]' shows a vision of this kind of Confucian ideal society. 'Da-tong' means that the whole is unified without any distinction between you and me, beyond the small difference that exists between each other. The detailed social aspects that 'Da-tong' society shows and the ideological contents revealed through i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based on the 'public view[公的天下觀]'. The core contents of public view are revealed by power transfer driven by '禪讓' based on '選賢與能', suggesting the social aspects of humanity pursuing the values and common interests of the whole humanity.

Second, it is a society that practices universal humanity. This shows the Confucian humanity and morality-centered values that are expanded into '仁民' with the 'love of parents[親親]' being a starting point.

Third, it is a society in which people's stable lives and welfare are implemented. It represents the ideal of '各得其所' of Confucianism where all the people live humanly and happily on the basis of their stable society without alienation or discrimination.

Fourth, social restoration of trust and peace have been realized. 'Da-tong' society is a society in which its members actively demonstrate 'virtues' and trust and harmony are embodied. It is a society where groups and groups as well as individuals and individuals coexist peacefully with trust. This is the ideal of '平天下' that Confucianism is aiming at.

To sum up, 'Da-tong' society is a society in which all its members practice love for

* Professor of Kongju National Univ. / jakwon@kongju.ac.kr

** Daejeon Doan High School, Teacher / cdog705@hanmail.net

mankind transcending their kinship and live a humane and worthwhile life on the basis of stable life without alienation or discrimination. It is a unified world in which people care for the social underprivileged based on 'universal humanity' and 'virtues', trust each other and carry out warm love beyond the distinction between 'you and me'. 'Da-tong' society has been influenced by various ideologies, but basically shows the views of ideal society based on Confucian thought.

【Key words】 Ideal society[理想社會], Da-tong[大同], public view[公的 天下觀], universal humanity[人類愛], trust[信賴], peace[平和]

투고일 : 5월 25일, 심사완료일 : 6월 19일, 게재확정일 : 6월 19일